

2022 공탁법

24회 때 출제되었던 몰수·추징보전관련 공탁이 다시 출제된 것과 담보공탁에서 출제가 안 된 것 외에는 공탁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총론,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의 신청절차, 공탁사항변경절차, 지급절차, 소멸시효 등 각 분야별 출제의 비중도 전년도와 같고,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하여는 여전히 사례형으로 출제된 것 역시도 전년도와 같지만 공탁의 당사자, 공탁관, 공탁물보관자, 공탁소의 관할 등 총론부분에서 문제가 늘어난 것이 전년도와는 다른 점이다.

난이도는 전년도 보다 더 무난하고 평이하게 출제되어, 기본이론과 기출문제의 지문만 제대로 숙지라고 있었다면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에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전년도 보다 득점하기가 훨씬 수월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2022. 8. 28.

김 경 태

구 분	上	中	下
2021	2	9	9
2022	2	7	11
가 감			+ 1
전체 영향		+ 1	

2022년 28회 공탁법 총평

담당교수 : 이천교 법무사 (야간반)

금년 28회 공탁법은 작년 27회 공탁법에 비해 우선 시험문제 지문이 전체적으로 1 페이지나 늘어나는 바람에(종전 약 3페이지 반이었는데 이번에는 4페이지 반) 시험부담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간단히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는 줄어든 반면,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약간의 응용사례들 혹은 단순 사례인 금전공탁을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물어보아 순간적으로 당혹스럽게 하거나 종전에 잘 출제되지 않던 지엽적인 부분의 지문들로 인해서(정답지문 포함) 정답을 정확히 고르기에 부담스럽고 망설여지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비해 체감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고, 특히 공탁법 기본서보다 기출 문제에 집중하면서 고득점을 기대했던 수험생분들에게는 고득점을 획득하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생소하고 부담을 줄 수 있었던 문제로는 작년에 파산문제가 있었다면 금년에는 추징보전 공탁문제가 있었고,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는 2개였으나 금년에는 3개로서 비슷하였으며, 한편 나머지 문제나 지문들 상당수는 종전처럼 익숙한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박스형 제외)가 작년에는 7문제나 출제되었는데 금년에는 2개만 출제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적을 수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년 공탁법의 경우는 작년보다 2-3문제 내외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